

# 주간 KDB리포트

Weekly KDB Report

## 이슈브리프

신 EU 기후적응 전략의 주요 내용  
코로나19 이후의 식료품 시장

## 금융시장

금리 · 환율 · 주가



# 주간 KDB리포트 Contents

## 이슈브리프

신 EU 기후적응 전략의 주요 내용 .....	1
코로나19 이후의 식료품 시장 .....	3

## 금융시장

금리 · 환율 · 주가 .....	5
--------------------	---

# 신 EU 기후적응 전략의 주요 내용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 
김 현 진 (maxnlio@kdb.co.kr)

- ◆ EU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'21.2월 '신 EU 기후적응 전략'을 발표
  -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기후변화 완화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도 중요
  - ①영리한 적응, ②체계적 적응, ③신속한 적응 및 ④국제적 행동 강화를 핵심 전략으로 제시
- ◆ 동 전략은 건축, 순환경제 등 유럽 그린딜의 세부정책과 병행 운영될 계획이며, EU 정책금융기관이며 기후은행인 EIB의 향후 금융지원 방향에도 영향

## □ EU는 기후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사회·경제적 위험에 대비하고 '50년까지 완전한 기후적응 역량을 갖추기 위해 '21.2월 '신 EU 기후적응 전략\*'을 발표

\* New EU Strategy on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: '13.4월 발표된 EU의 기후적응 전략 및 이에 대한 '18.11월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·보완되었으며, EU의 구체적인 기후적응 전략 등을 포함

-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 기후변화 완화(Mitigation)는 이미 진행 중인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방지할 수 없어 기후변화 적응(Adaptation)을 위한 역량 확보가 중요
  - 기후변화 적응은 ①미래 인적·자연적·물적 손실 회피, ②생산성 증가 등 경제적 이익 창출, ③사회·환경·문화적 혜택 등 3가지 효과(Triple Dividend)를 창출함으로써 기후대응에 기여할 수 있어 탄소중립 이행과정에 필수적
  - 한편 기후변화 완화는 '17~'18년 글로벌 기후금융의 93%(연평균 5,370억달러)를 차지했으나, 기후변화 적응은 5% 수준으로 저조[Climate Policy Initiative(2019)]
- 이에 EU는 동 전략을 통해 성공적인 기후적응을 위한 세부 전략 및 이행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후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서 역할을 강화할 계획
  - 최근 EU 대내외적으로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홍수, 가뭄 등 자연재해의 빈도와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어 기후적응을 위한 역량 강화가 시급한 상황
  - EU에 따르면 극심한 기후변화에 따른 역대 경제적 손실은 이미 연간 120억 유로 이상으로, 산업화 이전대비 3℃ 이상 기온이 상승할 경우 연간 1,700억 유로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

## □ EU는 ①영리한(Smarter) 적응, ②체계적(More Systemic) 적응, ③신속한(Faster) 적응 및 ④국제적 행동 강화를 기후적응의 핵심 전략으로 제시

- 우선 영리한 적응, 체계적 적응, 신속한 적응을 위한 세부 전략 및 이행방안을 제공함으로써 기후적응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

- 더불어 기후적응 전략의 이행과정에서 국가·지역·노동자 간 기후변화 위협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회원국 내 결속과 공정성도 강조

신 EU 기후적응 전략별 주요 내용

구분	세부 전략	EU의 이행방안
영리한 적응	① 최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한 기후 의사결정	Horizon Europe, Digital Europe, Copernicus 등을 활용하여 기후 지식격차 해소 지원 등
	② 정확한 기후 리스크 데이터의 기록수집·공유	데이터 기록·수집·공유의 기준 마련, Risk Data Hub를 통한 중앙 기록 지원 등
	③ Climate-ADAPT를 공식 지식플랫폼으로 활용	산발적 정보처리 메커니즘 통합 등
체계적 적응	① 기후적응 측정 기준 마련, 정책 일관성 유지	회원국 협력으로 국가 기후적응 전략 지침 마련 등
	② 지역별·개인별 기후적응의 공정성 증진	지역 기후적응 전략 및 지원기구 운영 등, ESF+, Erasmus+ 등 프로그램을 통한 근로자 지원
	③ 국가 재정 프레임워크에 기후적응 내용 반영	공공 재정에 미치는 기후 리스크의 잠재적 영향 측정방법 개발, 역내 기금과의 상호보완 강화 등
	④ 자연기반 솔루션(Nature-based Solutions) 촉진	자연기반 솔루션의 재무적 영향을 활용한 금융기법 개발 등
신속한 적응	① 기후적응 지원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 제고	EU Taxonomy <sup>주2)</sup> 의 지속 개발 등
	② 인프라 구축을 통한 기후적응 리스크 경감	중요 인프라 건축개조시 기후적응 기준 반영 등
	③ 기후보호격차 <sup>주1)</sup> 의 감소	유럽보험연기금청(EIOPA)과의 협력을 통한 금융상품 개발, 역내 자연재해 보험 촉진 등
	④ 물의 지속가능성 확보	제품의 절수 요건 강화, 지속가능 토지이용 계획 촉진 등

주 : 1) 기후 관련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 중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비중

2)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정의, 판별하기 위한 EU의 과학적·기술적 기준

자료 : EC(2021.2), "Forging a climate-resilient Europe : The new EU strategy on adaptation to climate change"

- EU는 기후변화의 연쇄효과가 미치는 사회·경제·생태계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 행동을 강화할 계획
  - 파트너 국가의 기후적응 계획 및 NDC(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)의 수립·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대외활동을 강화할 예정
  - 또한 역내 기금, GCF, Adaptation Fund\* 등 국제기금 활용으로 기후적응을 위한 글로벌 기후금융 확산 및 민간투자를 유인할 것으로 기대
  - \* '01년 설립된 국제기금으로, 교토의정서에 입각하여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에 금융지원

□ 동 전략은 유럽 그린딜과 병행 운영되며, EIB의 향후 금융지원 계획에도 반영

- EU는 동 전략이 건축, 생태계, 식품, 산업(순환경제) 등 유럽 그린딜(European Green Deal)의 분야별 정책과 긴밀히 협력하여 이행되도록 지원할 예정
  - EIB(European Investment Bank)도 '20.11월 발표한 '기후은행 로드맵 2021-2025'에서 EU의 기후은행으로서 기후적응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의지를 표명

# 코로나19 이후의 식료품 시장

KDB미래전략연구소 산업기술리서치센터  
배민지 (sodam628@kdb.co.kr)

- ◆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의 일상화로 인해 식료품의 온라인 구매가 가속화되었으며, 특히 간편식, 포장·배달음식 수요가 크게 증가
- ◆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빠른 배송, 간편결제, 고품질 상품 등 차별화된 요소를 보유한 기업만이 매출 성장 기록

## □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식료품의 온라인 구매 가속화

- 급격한 바이러스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로 소비자들이 온라인 구매를 선호하면서 온라인 쇼핑 이용 빈도 및 구매 금액 모두 코로나 이전에 비해 상승
  - 이전에는 오프라인 구매에 집중되었던 50대 이상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의 편의성을 경험한 이후 온라인 구매 지속 사용 의사를 보임
    - \* 최재연(2020), "코로나-19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소비심리와 HMR 구매패턴에 미치는 영향", 국내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
- 특히 그동안 온라인 전환이 가장 더뎠던 식품군에서 코로나 이후 가장 높은 온라인 매출 증가율(51.5%)을 보이며 빠르게 성장
  - \* 산업부 보도자료('21.1.29자), "2020년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"

2020년 상품군별 전년 대비 매출증감률

(단위 : %)

구분	가전/전자	도서/문구	패션/의류	스포츠	화장품	아동/육아	식품	생활/가구	서비스/기타	합계
'20년	21.2	30.0	2.2	8.9	16.0	13.3	51.5	25.3	△11.9	18.4
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('21.1.29)

## □ 내식, 간편식 및 포장·배달음식 수요 증가와 건강식에 대한 관심 증대

- 코로나 이후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내식 비율이 코로나 이전보다 증가하였으며, 특히 1인가구, 신혼부부가구 등 내식을 상대적으로 덜 하던 계층

에서 내식을 많이 하게 되면서 조리법이 비교적 간단한 구이류, 볶음류 등의 초간단 내식 메뉴의 취식 증가

- 코로나 이전 1년간 20~21% 수준이던 간편식 비중은 '20.3월 25% 수준으로 높아졌으며, 그 이후에도 23~25% 수준을 유지
- 포장 및 배달음식 비중 또한 코로나 이전 1년간 9~10% 수준을 기록하던 것이 '20.3월 이후 꾸준히 증가하며 '21.2월에는 13% 수준까지 상승

\* 오픈서베이(2021.04.16), "국내 유일 식생활 데이터로 분석한 코로나 1년 후 한국인 식생활 트렌드 변화"

-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건강식,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음식, 육류 및 채소류 중심의 식단을 선호하며 식품 구매시 영향을 주는 주요 기준으로 '건강'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2.8% 증가

\* 정원우(2021), "코로나19로 상황에서 심리적 및 사회적 요인이 식생활 변화에 미친 영향". 국내 학위석사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

**□ 코로나 장기화 속 매출 증가한 식품 유통채널의 주된 성장 요인은 빠른 배송, 간편 결제 등 차별화를 통한 결제 건수의 증가**

- 매출 증대를 위해 객단가를 높이는 전략은 단기적인 매출이나 운영 효율 측면에서는 효과적이나 높아진 객단가로 인해 결제 빈도 및 결제자 수가 상쇄되는 한계가 존재

\*  $매출 = 객단가 \times 결제 건수 = 객단가 \times 인당 결제 빈도 \times 결제자 수$

- 장기적인 비즈니스 성장을 위해서는 인당 결제 빈도 및 결제자수의 총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며, 실제로 배달음식, 온라인 쇼핑, 친환경 식료품점에서 코로나 이후 꾸준히 결제 건수가 증가
- 결제 건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빠른 배송과 간편 결제, 고품질 상품 확보 및 서비스 다각화 등 차별화되는 요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

식품 유통채널별 코로나 전후 매출 성과 요인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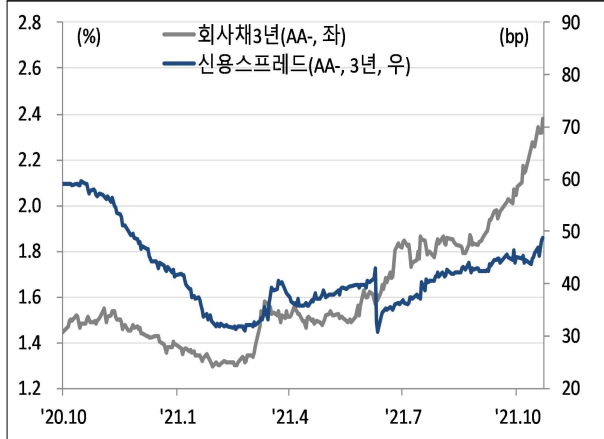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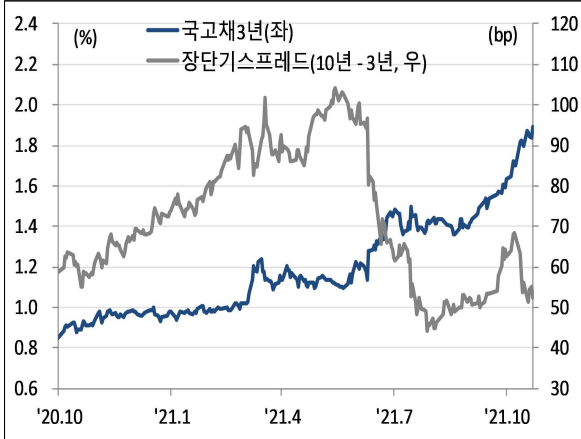
▼감소 ▲증가 ▲▲크게 증가

구분	결제 금액	결제 건수	객단가	인당 결제 빈도	결제자 수
편의점	▼	▼	▲	▼	▼
대형마트	▼	▼	-	▼	▼
창고형 할인매장	-	-	▲	-	▼
기업형 슈퍼마켓	▼	▼	-	-	▼
동네슈퍼	-	▼	▲	▼	▼
친환경 식료품점	▲▲	▲	-	▲	-
무인점포/온라인쇼핑	-	-	-	-	-
배달음식	▲▲	▲▲	-	▲	▲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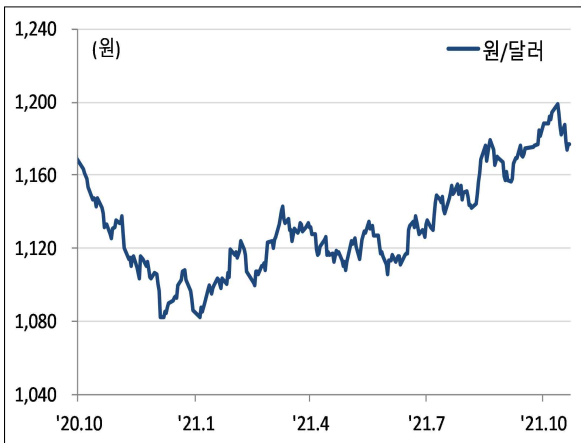
자료 : 오픈서베이 신용카드 결제 내역 데이터

# 금리 · 환율 · 주가

**금리** 국고채3년 1.889% (9.4bp ↑), 신용스프레드 48.8bp (2.8bp ↑)



**환율** 원/달러 1,177.1원 (5.3원 ↓), 엔/달러 113.52엔 (0.7엔 ↓)



**주가** 코스피 3,006.16pt (0.3% ↓), 코스닥지수 995.07pt (0.46% ↑)



\* ( )는 전주대비 상승 ↑, 하락 ↓

## 주간 KDB리포트

Weekly KDB Report

제949호

주간 KDB리포트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거나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
**인터넷**            [rd.kdb.co.kr](http://rd.kdb.co.kr), [kdb.co.kr](http://kdb.co.kr)  
**문의**                787.7818

본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으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.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되며, 원고의 무단전재, 복제,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.